장인이 한땀 한땀…광주판 '월계수 양복점'

'맞춤 양복' 최근 다시 주목
父子 가업 '전병원 양복점' 화제
"최고 되라" 선친 가르침 새겨
2014년 '대한민국 명장' 반열
2년전부터 아들에 기술 전수

광주판 '월계수 양복점'인 '전병원 양복점' 대표 전병원(오른쪽)씨가 아들 성배씨에게 맞춤양복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옷을 잘 입는 것도 실력이라네. 옷차림이 누추하면 용기가 없어 보이지. 남자는 수트를 잘 갖춰입었을 때 당당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라네… 이 양복이 자네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시청률 30%대를 육박하며 주말 저녁 시청자들을 안방으로 불러모으고 있는 KBS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양복점 주인인 만술(신구)이 취업에 실패하고 애인에게 버림받은 태양(현우 분)에게 직접 지은 양복을 선물해 주는 장면이다.

드라마 '월계수…'는 기성복 브랜드의 대형화 공략에도 꿋꿋하게 맞춤 양복을 고집하며 장인정신을 이어가는 만술을 중심으로 주인공들의 눈물과 우정, 성공, 사랑을 그린 드라마다. 잘나가는 패션회사 부사장이던 아들 동진(이동건)이 아버지와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을 빚어오다 결국은 아버지의 양복점으로 돌아가 가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월계수…' 이야기가 통할까 싶었지만 시청자들의 취향을 저격했고, 드라마 속 이야기는 현실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 광주판 '월계수 양복점'이다.

70~80년대 광주 충장로 일대 상가는 맞춤 양복점과 양장점, 양화점이 80~90%를 점령하고 있었다. 200여곳에 달하던 의류점들은 90년대를 넘어서면서 급격히 쇠락했고 지금은 8곳만이 겨우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곳 충장로 5가에서 '전병원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는 전병원(60)씨는 드라마속 '만술과 동진 부자(父子)'처럼 아들 성배(27)씨와 가업을 꾸려가고 있다.

"지난 90년대 중후반부터 기성복의 기세에 눌려 거의 무너졌던 맞춤양복이 최근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성복을 입던 고객들도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고 싶어 전통적인 핸드메이드 양복점으로 돌아오는 분위기에요. 여기에 드라마 '월계수'가 기름을 부어준 셈이죠."

"무엇을 하든 그 분야의 최고가 되라"는 부친의 가르침대로 전씨는 양복기술계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맞춤양복의 전성기였던 80년대에는 하루에 34벌의 양복을 주문받은 적도 있었다. 드라마 속 배삼도(차인표)처럼 맞춤양복기술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2014년에는 기술자들에게 주는 최고 명예인 '대한민국 명장'에도 이름을 올렸다.

2년전 어느날 아버지의 일을 배워보고 싶다고 선언한 아들에게도 차근차근 기술을 전수해 주고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장인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맞춤양복 일을 하겠다는 아들이 고맙고 대견할 수 밖에 없다.

"오래된 단골 중엔 제가 젊은 시절 재단사로 일할 때부터 만난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연로하셔서 자식들을 데려와 옷을 맞춰 선물하는 분들도 많아요. 10년 전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저희 양복점을 찾아 왔다면, 지금은 아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구한 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찾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제 아들도 맞춤양복의 최고 기술자가 돼서 '월계수 양복점'처럼 이름만 들어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장이 되길 바랍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7:36	달뜸	05:05
해짐	17:53	달짐	15:34

오늘도 추워요

대체로 맑겠고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춥겠다.

◇ 지역별 날씨 (℃)

광 주	맑음	-6/5	보 성	맑음	-10/4
목 포	맑음	-4/4	순 천	맑음	-4/6
여 수	맑음	-3/5	영 광	맑음	-7/3
나 주	맑음	-9/4	진 도	맑음	0/3
완 도	맑음	-2/5	전 주	맑음	-7/3
구 례	맑음	-9/3	군 산	맑음	-7/4
강 진	맑음	-6/5	남 원	맑음	-10/3
해 남	맑음	-6/4	흑산도	맑음	1/5
장 성	맑음	-9/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
	먼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먼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먼바다(서)	북서~북	1.0~1.5	북서~북	1.0~1.5

◇ 생활지수

뇌졸중	매우높음
감기	매우높음
체감온도	관심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5:33	12:50
	18:27	--:--
여수	01:12	08:03
	14:08	19:48

◇ 주간 날씨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31(화)	2/1(수)
-4/8	0/6	-4/8	1/7	0/5	-3/7	-1/8

포근한 '설'…내일부터 평년기온 회복

26일부터는 매서운 한파가 물러나고 차츰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5일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 날씨가 맑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튿날인 26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광주는 5도, 장흥과 순천, 광양은 9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기온(최저 -5~-1도, 최고 5~7도)을 회복해 날씨가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7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 중에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됐다. 강수량은 평년(0~1㎜)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관계자는 "25일까지는 추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은재기자 ej6621@

불법 현수막 건 건설사 '과태료 폭탄'

길거리 마구잡이 분양 광고…광주 남구, 3곳에 2억5천만원

광주시 남구가 10여 일간 집중단속을 펼쳐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건설사 3곳에 2억4000여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내렸다.

남구는 아파트 건설 분양 광고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건물 외벽, 도로변에 마구 내건 3개 건설사에 총 2억48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집중단속을 펼친 남구는 주요 도로, 다중 이용시설, 상업지구, 학교 등에 게릴라성 현수막과 벽보, 풍선형 광고 등 1200건을 적발, 수거했다. 이 가운데 3개 건설사 측이 내건 현수막이 994건에 달해 전체 단속량의 82.8%를 차지했다.

아파트 분양 광고물을 내건 A사는 총 589건이 적발돼 건당 25만원씩 1억472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사 역시 불법 현수막 294개를 상습적으로 내걸어 7350만원을, 111건이 적발된 C사는 2775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이밖에 학원, 헬스, 음식점, 대출 업체 등도 불법 광고물로 적발됐다.

남구 관계자는 "소극적인 대처로는 분양 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건축허가 및 승인 부서 등과 연계해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장염·뎅기열…설 연휴 감염병 조심

고열·설사·구토 증상 있을땐 즉시 병원 방문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음식물 보관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예방과 해외여행 후 해외유입감염병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에는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그리고 해외여행에 따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뎅기열, 황열 등의 감염병이 우려되고 있다.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은 명절의 특성상 음식물 공동으로 섭취하거나 음식물을 소홀히 관리함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집단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음식물 익혀 먹기와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고열과 설사·구토·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긴 연휴기간 해외여행을 통한 해외 유입감염병 예방을 당부했다. 현재 동남아 지역에서 뎅기열이 증가하고 있고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도 지속하고 있으므로 임신부는 해당 국가로의 여행을 삼가야 하며, 일반 여행객은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관계자는 "설연휴 각종 감염병 발생 및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29개 지자체 방사능 정보공유

국민안전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영광, 무안 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29개 지방자치단체에 방사능 상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는 평시에 원자력발전소 운영정보와 전국 방사선환경 감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29개 지자체는 전남 등 광역지자체 8곳 그리고 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을 비롯한 전남 4곳 등 21개 기초지자체다. 모두 원자력 관련 시설이나 기관이 있거나 그 인근 지역이다. 안전처는 올해 안에 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머리 채용 거부 인권침해"

대머리라고 해서 채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호텔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대머리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권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 호텔 대표와 채용담당 협력사 대표에게 외모를 이유로 채용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탈모 현상은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인데도 이를 통념상 호텔 고객서비스에 부적합한 외모로 단정해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비행기보다 오래 타는 버스는 이제 그만~!
이제부턴 무안에서 편안하게 떠나세요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062)234-3222 Fax.(062)234-3141
NAVER 조이투어 검색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추천1. 무안→규슈/오사카 직항 전세기

규슈 출발일 : 12.16~2.26/3박4일
산악회를 위한 규슈올레길! 548,000~
기타큐슈 야마구치/미야지마 838,000~
기타큐슈 나가사키/우레시노 838,000~

오사카 출발일 : 1.30, 2.2/3박4일
오사카/나라/교토/고베 1,168,000~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교토/나라 1,16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298,000~

오사카 설연휴 : 1.27/3박4일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교토/나라 1,388,000~
오사카/교토/와카야마/시라하마 1,458,000~

추천2. 무안→라오스 직항 전세기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가장 가고싶은 곳 1위!!
★초특가 12/28, 1/9★
[육로]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949,000~
출발일 : 2016.12.28~2017.1.21/3박5일
[항공]비엔티엔/루앙프라방 1,498,000~
[항공]비엔티엔/방비엥/루앙프라방 1,548,000~

추천3. 무안→다낭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30~2017.2.24/3박5일
[관광]다낭/호이안/후에 1,149,000~
[골프]다낭 골프 54홀 1,649,000~
※공통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TAX, 전일정식사, 관광지입장료, 숙소, 여행자보험, 기사 및 가이드팁
※공통불포함사항 : 여권 및 개인비용(골프상품만 클럽 중식 불포함)

추천4. 무안→대만 직항 전세기
출발일 : 2016.12.7~2017.2.26/3박5일
[실속]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699,000~
[품격]타이페이/야류/화련/지우펀 799,000~
[실속]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899,000~
[품격]타이중/야류/화련/지우펀 999,000~

<일본 전세기 특전>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한벌제품★ 한벌에비뉴 고급 여행가방 증정! (4인 가족 기준 1개 증정) ※실속 상품은 제외

★항공특가(항공권편도) 선착순 5명★
무안↔기타큐슈 : 편도 50,000원부터~
무안↔오사카 : 편도 98,000원부터~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동다 2003-1호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단,기사/가이드봉사료,선택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계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